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웨스트나일열, 다국가 West Nile fever in Multi-Country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그리스를 중심으로 웨스트나일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가 급증하는 등 북반구 유행철(7~9월)을 맞아 환자 발생이 확산

- ECDC는 '26년 8월 13일 기준 유럽 9개국에서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환자 429명이 보고되었으며, 이탈리아(224명), 그리스(105명), 스페인(42명), 북마케도니아(3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함
- 유럽 내 사망은 ECDC·ESFA 월간보고 기준(~8.5.) 12명(그리스 6명, 이탈리아 5명, 루마니아 1명)이며, 이탈리아·프랑스·독일·북마케도니아의 6개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감염 환자가 보고됨
- 美CDC는 '26년 8월 18일 기준 32개주(워싱턴 D.C. 포함)에서 환자 222명(신경침습 156명, 비신경침습 66명)을 보고하였으며, 6월 말 기준 환자 수(48명)는 최근 동기간 평균(약 10명)의 약 5배로 '04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급증 양상임
- 이스라엘에서는 '26년 7월 16일 올해 첫 환자(텔아비브 거주자)가 확인되었으며, 동 국가는 '24년 환자 930명 이상(사망 73명)의 대규모 유행을 경험한 바 있음
- WHO 유럽지역사무처는 기온 상승과 여름철 장기화로 매개모기의 활동 기간과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회원국에 모기 감시 강화와 예방수칙 홍보를 권고함
- 웨스트나일열은 사람용 예방백신과 특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예방이 주요 예방수단임. 국내에서는 웨스트나일열이 제3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2년 첫 해외유입 사례 이후 국내 감염(토착) 사례는 없음. 유행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발열·두통·목경직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의료인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

2. 라임병, 체코 & 미국 Lyme Disease in the Czech Republic and the USA

'26년 1월~7월 체코에서 라임병 환자 8,108명 보고되어 '25년 대비 2.65배 수준, 미국 남부 애플라치아 지역 진드기 조사(24.11~25.8)에서 검은다리진드기 북부 계통 개체군과 매개 병원체 남하 가능성 시사

- 체코에서는 '26년 1월~7월 라임병이 8,108명 보고되었으며, 이는 '25년 동기간 대비 약 2.65배 수준임. '26년 7월(2,792명)에만 1월~7월 누적신고의 약 34%를 차지했으며, 신고건수는 인구가 많은 중부 보헤미아(1,153명), 남모라비아(1,052명)에서 가장 많았으나, 인구 대비 발생률은 비소치나, 남보헤미아 지역이 가장 높음

- 미국 비풍토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빌트모어 숲에서는 진드기 분포 조사('24.11~'25.8)에서 보렐리아 미야모토이(*B. miyamotoi*, 재귀열균)와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포룸(*Anaplasma phagocytophilum*)가 검출됨. 이는 북부지역에 분포하던 검은다리진드기(*I. scapularis*)의 개체군과 매개병원체의 분포가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체코에서는 '25년 7월부터 일반의 및 소아과 의사가 보고한 감염병 정보가 중앙 감염병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ISIN)에 자동 입력되도록 감시·보고체계가 변경됨. 이에 따라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근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됨
- '15년~'23년 유럽 라임병 연구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됨을 근거로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진드기 예방 캠페인 강화, 의료진 교육 개선 등 예방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국가별 감시체계 차이로 실제 질병부담이 과소평가될 수 있어 감시자료의 지속적인 수집·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국 검은다리진드기 확산연구에서는 보렐리아 미야모토이,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포룸의 검출을 근거로 미국 남동부에서 검은다리진드기 감시와 관련 병원체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또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호복 착용, EPA 등록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진드기 확인 등 진드기 물림 예방교육을 권고함
- 국내에서는 산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남방참진드기, 사슴참진드기 등 Ixodes속 4종이 라임병 매개 가능종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연중 발생 가능하나, 4~11월 주로 발생함.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①적절한 복장(긴팔·긴바지 등) 착용, ②진드기 기피제 사용, ③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④야외 활동 및 작업 이후는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함

3. 공수병, 미국 & 캐나다 Rabies in the USA and Canada

'26년 31주까지 미국에서 공수병(인체감염) 환자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비버, 박쥐,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광견병(동물감염) 발생 및 인체 노출 사례가 지속 발생 중

- '26년 31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수병 환자 보고는 없으나, 최근 비버, 박쥐 등 야생동물의 광견병 감염 및 사람 노출 사례가 보고됨
- 미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에 의한 사람 교상·접촉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캐나다에서는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의 광견병 확진이 증가함에 따라 인체 노출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05년 이후 공수병 환자 발생이 없고, 동물에서도 '14년 이후 광견병 환축 발생 보고는 없음. 다만, 북한과 인접한 휴전선 인근 지역의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의심됨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험국가 여행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1. 웨스트나일열, 다국가 West Nile fever in Multi-Country regions

발생 상황

ECDC 주간 보고에 따르면 '26년 8월 13일 기준 유럽 9개국에서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환자 429명이 보고되었으며, 이탈리아(224명)와 그리스(105명)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함. 미국에서는 '26년 8월 18일 기준 32개 주(워싱턴 D.C.포함)에서 환자 222명(신경침습 156명, 비신경침습 66명)이 보고되었고, 이스라엘에서도 7월 16일 올해 첫 환자가 확인되는 등 북반구 유행철을 맞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유럽 지역 (Europe Region)

- ECDC 주간 보고에 따르면 '26년 전파시즌(ECDC 주간감시 대상기간) 시작 이후 8월 13일 기준 유럽 9개국 77개 지역에서 지역감염 환자 429명이 보고되었으며(이탈리아 224명, 그리스 105명, 스페인 42명, 북마케도니아 30명, 루마니아 18명, 프랑스 6명, 세르비아 2명, 독일·코소보 각 1명),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전체의 약 77%가 발생함¹⁾
 - 발생 지역별로는 이탈리아 40개, 그리스 13개, 루마니아 12개, 프랑스 4개, 북마케도니아 3개, 스페인 2개, 독일·세르비아·코소보 각 1개 지역이며, 이 중 19개 지역은 이번 주 처음으로 발생이 보고됨
 - 지역별 환자 수는 그리스 동(東)아티카(49명), 스페인 세비야(38명), 북마케도니아 스코페(28명), 이탈리아 파도바(19명)·밀라노(17명)·로마·라티나(각 16명) 순임
 - ※ 세르비아(베오그라드)와 코소보(자코바)에서는 '26년 8월 13일 기준 처음으로 환자가 보고됨. 해당 지역별 환자수는 확진(confirmed)과 추정(probable)사례가 합산된 수치임
- ECDC·EFSA(유럽식약청)는 공동 월간보고서를 통해 '26년 8월 5일 기준 유럽 7개국에서 지역감염 환자 245명, 사망 12명(그리스 6명, 이탈리아 5명, 루마니아 1명)이 보고되었으며, 최초 증상발현일은 5월 12일, 가장 최근 증상발현일은 8월 1일임²⁾
 - 환자 245명은 최근 10년 간 동기간 평균(403명)보다 낮은 수준이나, 진단·보고 지연과 무증상 감염이 많아 실제 발생 규모는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발생 지역 수는 58개(NUTS 3 기준, 7개국)로 '25년 동기간(40개 지역, 6개국)보다 넓으며, '25년 최종 160개, '24년 218개 지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임
 - 이탈리아 캄포바소·비테르보, 프랑스 피레네조리앙탈, 독일 라인팔츠크라이스, 북마케도니아 펠라고니아·바르다르 등 6개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감염 환자가 발생함
 - 환자는 예년과 유사하게 65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많았고, 입원율 72%, 신경증상 발현 58%, 치명률 약 5%로 최근 10년 평균(입원율 87%, 신경증상 64%, 치명률 11%)보다 낮으나, 임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동물에서는 말 17건, 조류 74건의 발생이 보고(조류: 이탈리아 64건, 프랑스 5건, 스페인 3건, 오스트리아·벨기에 각 1건 / 말: 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각 5건, 네덜란드·스페인 각 1건)되었으며, 최초 발생일은 말 3월 30일(프랑스), 조류 3월 31일(이탈리아)임. 동물 발생은 7개국 43개 지역(NUTS 3)에서 보고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유럽 전체 사람 환자의 56.7%와 동물 발생의 75.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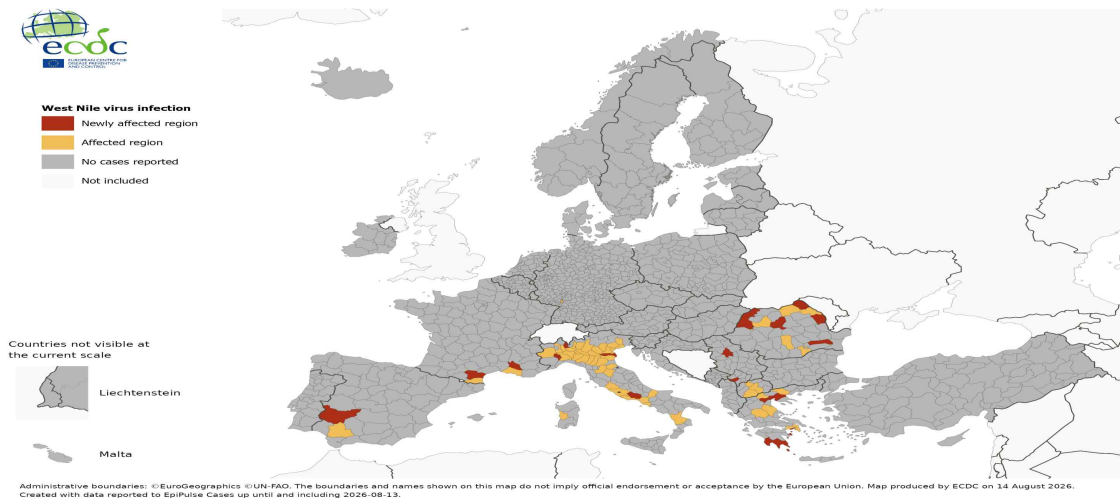


그림 1-1. 2026년 유행철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환자 발생 지역¹⁾
(ECDC, '26.8.13. 기준, 지도제작 '26.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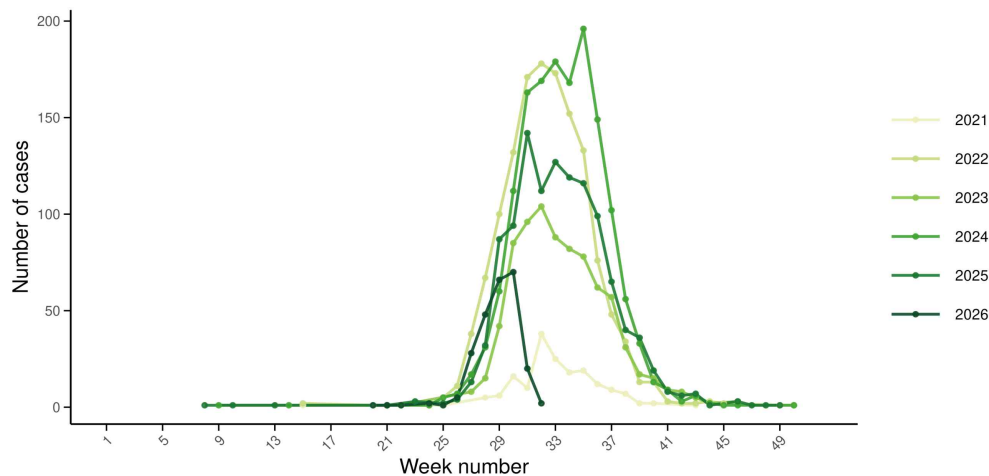


그림 1-2. 유럽 지역 웨스트나일열 주(週)별 지역감염 환자 발생 추이 비교, 2021~2026년²⁾
(ECDC·EFSA, '26.8.5. 기준)

이탈리아³⁾

-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ISS)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26년 8월 12일까지 웨스트나일열 확진자 226명(해외유입 2명 포함)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신경침습성 질환 102명, 무증상 헌혈자 바이러스 검출 사례 38명, 발열 86명으로 집계됨
 - 해외유입 사례는 몰디브 방문 후 발생한 신경침습성 사례 1명과 부르키나파소 방문 후 발생한 발열 사례 1명이며, 확진자 중 7명이 사망(해외 유입 1명 포함)함
- 매개체·동물·사람에서 웨스트나일열 순환이 확인된 주(province)는 50개(8월 5일 기준)에서 55개(8월 12일 기준)로 확대되었으며, 16개 지역(region)에 분포함. 한편 인체 확진자가 보고된 지역은 11개 지역임
 - 지역별 확진자는 롬바르디아 63명, 라치오 35명, 피에몬테·베네토 각 33명, 에밀리아-로마냐 27명, 캄파니아 15명, 사르데냐 10명, 토스카나 5명,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몰리세·칼라브리아 각 1명으로 집계됨

※ 이탈리아 ISS의 226명은 해외유입 2명을 포함한 전체 확진자이며, ECDC의 224명은 지역감염 사례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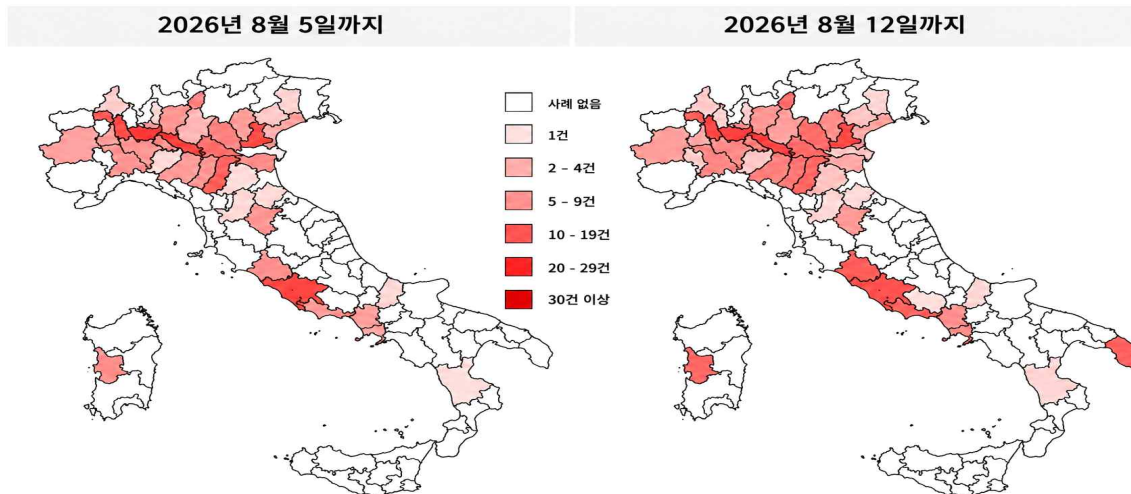


그림 1-3. '26년 전파시즌 노출 지역별 웨스트나일열 확진 사례 현황³⁾
(이탈리아 국립보건원, 8.12. 기준, 8.13발행)

그리스⁴⁾

- 그리스 국립공중보건기구(NPHO) 주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8월 12일까지 지역사회 내 웨스트나일열 환자 110명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신경침습성 질환 81명, 경증 증상 사례(발열) 29명으로 집계됨. 최근 1주일 간 45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신경침습성 질환 환자 중 9명이 사망함. 신경침습성 질환 환자의 연령범위는 19~91세(중앙값 73세)이며, 사망자는 모두 65세 이상(중앙값 82세, 범위 66~91세)임
- 8월 12일 기준, 그리스 4개 지역(아티카, 테살리아, 중앙마케도니아, 펠로폰네소스)의 14개 지역단위와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아티카 지역에서 WNV가 활발하게 순환하고 일부 지역에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NPHO는 2010년 이후 그리스에서 웨스트나일열 인체 감염 사례가 거의 매년 발생하여 WNV가 자국에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6년에도 기존 및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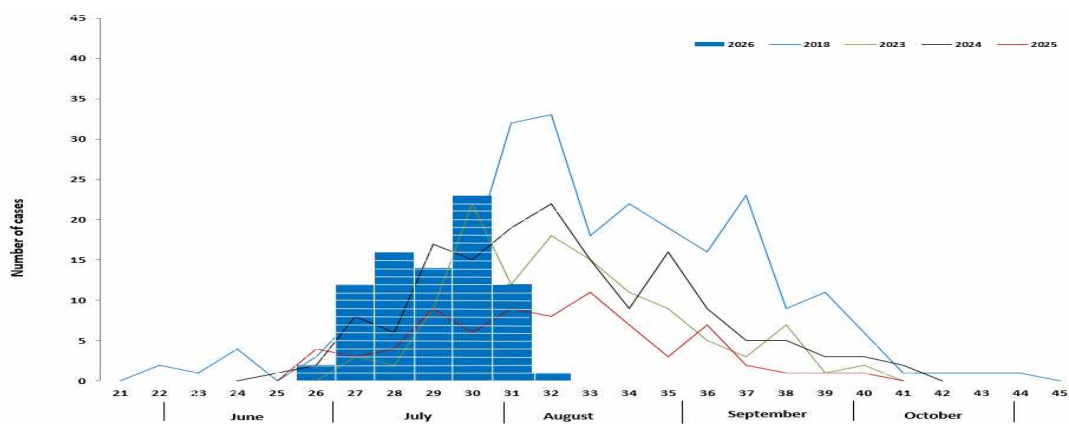


그림 1-4. '18년, '22년~'26년 그리스 웨스트나일열 신경침습성 질환(WNND) 환자 발생 현황⁴⁾
(그리스 국립공중보건원, 8.12. 기준)

■ 미주 지역 (Region of the Americas)⁵⁾

- 美CDC는 '26년 8월 18일 기준 32개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 222명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는 156명(70.3%)임
- 주(州)별로는 애리조나(환자 76명), 텍사스(환자 31명), 캘리포니아(환자 29명), 네브래스카(환자 10명) 순으로 많이 보고*됨

* 애리조나 76명, 텍사스 31명, 캘리포니아 29명, 네브래스카 10명, 미시시피 7명, 사우스다코타·유타 각 6명, 앨라배마·콜로라도·루이지애나 각 5명, 켄터키·뉴멕시코·버지니아 각 4명, 아칸소·메릴랜드·오클라호마·테네시 각 3명, 조지아·미네소타·워싱턴 D.C. 각 2명, 델라웨어·플로리다·아이다호·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노스다코타·펜실베이니아·워싱턴·와이오밍 각 1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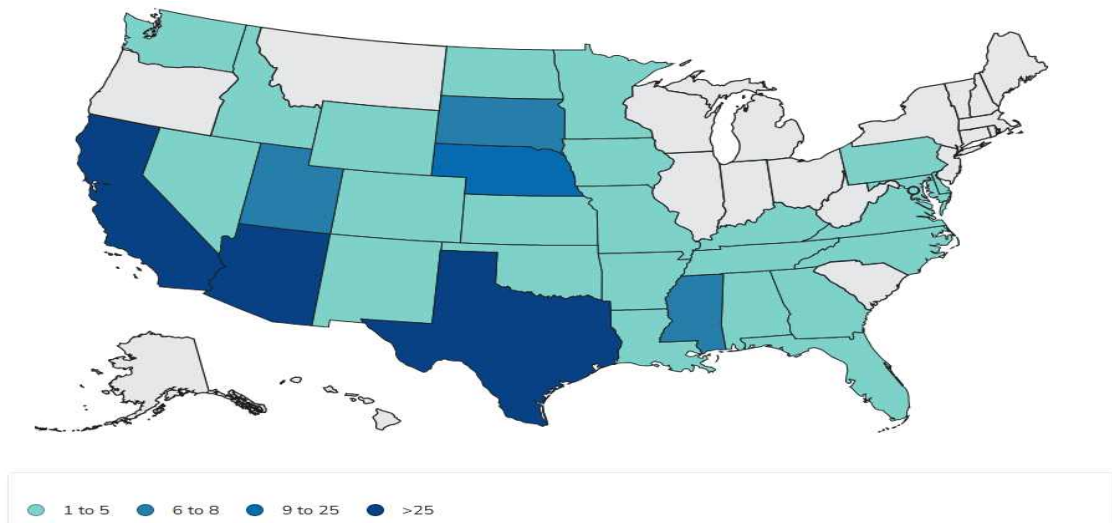


그림 1-5. '26년 미국 웨스트나일열 발생 지역⁵⁾ (美CDC, 8.18. 기준)

- '26년 6월 30일 기준 확진환자는 48명(신경침습 38명)으로 최근 동기간 평균(약 10명)의 약 5배 수준이며, 같은 시점 사람·모기·조류 등에서 웨스트나일바이러스 활동이 확인된 주는 23개 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음. 이처럼 이른 시기에 환자가 급증한 것은 '04년(연간 환자 2,500명 이상, 사망 100명 이상) 이후 가장 이른 증가 양상으로 보도됨⁶⁾

※ 미국 ArboNET 자료는 잠정 통계로 보고 지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경증(비신경침습성) 질환은 중증질환보다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음⁵⁾

■ 동지중해 지역 (Eastern Mediterranean Region)⁷⁾

- 이스라엘 보건부와 환경보호부는 '26년 7월 16일 올해 첫 웨스트나일열 환자(텔아비브 거주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감시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이스라엘은 '24년 고온다습한 기상으로 모기 번식이 증가하면서 환자 930명 이상, 사망 73명의 대규모 유행을 경험하였고, '25년에는 환자 4명이 보고됨

상황 평가

- WHO 유럽지역사무처는 기온 상승과 여름철 장기화로 매개모기의 활동 기간과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회원국에 모기 감시 강화와 예방수칙 홍보를 권고함
 - 美CDC는 웨스트나일열 발생이 여름에서 가을철에 집중되는 가운데,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경보(HAN, CDCHAN-00532, '26.8.11.)를 발령하였고, '26년부터 매년 7월 1일~10월 31일까지 모든 잠재적 생체·사체 고형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계절성 웨스트나일열 검사가 의무화되어 이식 관련 감염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 웨스트나일열은 사람용 백신과 특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예방이 주요 예방수단이며, 유행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발열·두통·목경직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의료인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
- WHO 유럽지역사무처는 '26년 7월 24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에 모기 감시 강화와 주민 대상 예방수칙 안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위험은 낮으나 유행지역 거주자·여행자는 모기물림 예방과 중증 증상 인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⁸⁾
 - WHO는 유럽에서 대부분의 감염이 모기 활동기(늦봄~가을)에 발생하고 특히 7~9월에 전파가 가장 활발하며, 감염자의 약 70~80%는 무증상이나 약 150명 중 1명은 뇌염·수막염 등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모기에 물린 후 고열·발진·목경직 등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함⁸⁾
 - ECDC·EFSA는 유럽의 기상 조건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하여 향후 수 주간 사람 환자와 말·조류 발생이 추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예년의 경우 통상 8~9월에 전파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함²⁾
 - ECDC·EFSA는 벨기에·네덜란드 등에서 조류·말 감시로 사람 환자보다 먼저 바이러스 순환이 확인된 사례를 들어, 사람·동물·매개체를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함²⁾
 - 이탈리아는 국가 아르보바이러스 예방·감시·대응 계획(PNA)에 기반하여 장기이식 네트워크의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시·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기·조류·말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나 인체 확진 사례 등이 감시 트리거로 확인될 경우 장기 기증자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를 의무화하고 있음. 동 조치는 '26.6.1.~11.30.까지 적용되며, 근거가 되는 PNA(2020-2025)는 '26.12.31.까지 연장됨¹⁰⁾
 - 그리스 NPHO는 WNV 발생에 대응하여 인체감시를 강화하고 보고된 환자를 진단 후 24시간 이내 역학조사하는 한편, 감염·고위험지역을 지정하여 표적 혈액안전 및 혈액감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6년에는 능동적 모기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모기 채집·검사를 실시하고 있음⁴⁾
 - ECDC는 EU 지침(2004/33/EC, 2014/110/EU)에 따라 WNV 지역감염 위험지역을 방문한 헌혈자의 경우 마지막 방문 후 28일간 헌혈을 유보하거나 개별 핵산증폭검사(NAT) 음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지역 지도와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¹⁾⁹⁾
 - 미국에서는 웨스트나일열 발생이 8~9월에 정점에 이르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심혈관·심장 질환자 등은 신경침습 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함⁶⁾

- 특히 B세포 억제·조절 약물(항-CD20 단클론항체 등)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모기·진드기 매개 아르보 바이러스 질환의 신경침습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증례에서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제시함¹¹⁾
- 또한 웨스트나일바이러스는 드물게 수혈 및 장기이식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혈액·장기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美CDC에 따르면 '26년 6월부터 매년 7월 1일~10월 31일까지 모든 잠재적 생체·사체 고형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계절성 웨스트나일열 검사가 의무화됨¹²⁾
- 국내에서는 웨스트나일열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26.8.20.) 국내(토착) 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¹³⁾
- 사람용 백신과 특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예방이 주요 예방수단이므로 웨스트나일열 유행지역 여행 시 밝은색 긴팔·긴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모기 활동이 활발한 새벽·해질녘 야외활동 자제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발열·두통·근육통·발진·목경직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⁸⁾

1) Weekly overview of areas affected by West Nile virus in Europe, based on reported human cases – Week 33, 2026 (ECDC, '26.8.14.)

2) Surveillance of West Nile virus infections in humans and animals in Europe, monthly report – data submitted up to 5 August 2026 (ECDC·EFSA, '26.8.12.)

3) Report della Sorveglianza dei casi umani di West Nile e Usutu virus in Italia nella stagione 2026 2026년 시즌 이탈리아 웨스트나일 및 우수투 바이러스 인간 감염 사례 감시 보고서 ('26.8.13.)

4) Weekly Epidemiological Report for West Nile Virus infection, Greece, 2026 (NPHO, '26.8.12.)

5) 美CDC West Nile virus Current Year data (2026) (美CDC, '26.8.18.)

6) 언론보도 | West Nile Virus Is Entering Peak Transmission Season, and 2026 Is Already the Worst in Over 20 Years (Medical Daily, '26.7.14.)

7) 언론보도 | Israel reports 1st West Nile fever case of the year (Xinhua, '26.7.16.)

8) West Nile virus: as cases rise across parts of Europe, here is what you need to know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6.7.24.)

9) Weekly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Week 23, 30 May–5 June 2026 (ECDC, '26.6.5.)

10) West Nile Virus, dal 1 giugno ripartono le misure di sorveglianza della Rete trapianti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장기 이식 네트워크 감시 조치 6월 1일부터 재개 (이탈리아 보건부, '26.5.29.)

11) Risk of Severe Arboviral Disease in Patients Receiving B Cell–Depleting or Modulating Medications (美CDC, '26.8.11.)

12) 美CDC Organ Transplantation (美CDC, '26.7.8.)

13) 2026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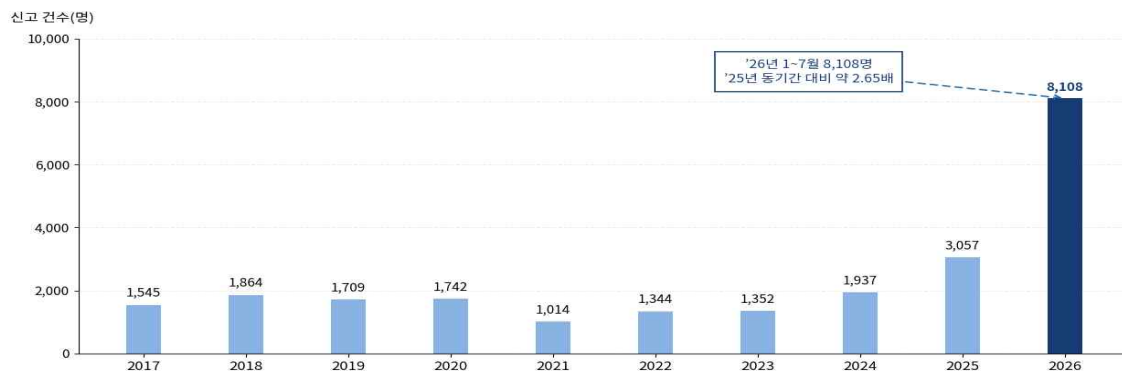
질병개요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fever〉 ¹³⁾
정의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제3급 감염병	
병원체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 <i>Flaviviridae</i> 과 <i>Orthoflavivirus</i> 속	
병원소	· 모기 · 조류(까마귀, 까치, 어치, 참새목 등)	
매개체	· 주로 집모기류(<i>Culex</i> spp.) - 빨간집모기군(<i>Culex pipiens</i> complex) 등	
전파경로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 · 혈액을 통한 전파(수혈감염, 장기이식, 주사바늘 찔림 사고 등) ·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잠복기	· 2~14일(일반적으로 2~6일)	
임상증상	· 감염된 사람들의 70~80%는 무증상임 · 신경계 비침습 질환(Non-neuroinvasive disease): 발열, 오한, 주로 허약감,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림프절병증, 안구통 등 · 신경계 침습 질환(Neuroinvasive disease): 수막염, 뇌염, 급성이완마비(acute flaccid paralysis) 또는 급성의 중추 혹은 말초 신경계 이상	
치명률	· 신경계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약 10%	
진단	· 확인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West Nile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치료	· 보존적 치료	
환자·접촉자 관리	· 환자관리: 수혈, 장기이식, 출산, 모유수유 등 전파 가능성에 대한 주의 · 접촉자 관리: 필요없음	
예방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주요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취급 시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 예방접종: 없음 · 웨스트나일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증상 발현 또는 진단 후 6개월간 헌혈 금지	

2. 라임병, 체코 & 미국 Lyme Disease in the Czech Republic and the USA

발생 상황

- 체코에서는 '26년 1월~7월 라임병이 8,108명 보고되었으며, 이는 '25년 동기간 대비 약 2.65배 수준임. '26년 7월(2,792명)에만 1월~7월 누적신고의 약 34%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중부 보헤미아(1,153명), 남모라비아(1,052명)가 가장 많이 보고됨
- 미국 비풍토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빌트모어 숲에서는 진드기 분포 조사('24.11~'25.8)에서 보렐리아 미야모토이(*B. miyamotoi*)와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포필룸(*Anaplasma phagocytophilum*)가 검출됨. 북부지역에 분포하던 검은다리진드기(*I. scapularis*)의 개체군과 매개병원체의 분포가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체코 국립공중보건연구소(SZÚ) 감시자료에 따르면, '26년 1월~7월 라임병 발생이 8,108명 보고됨. 연도별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22년 1,344명, '23년 1,352명, '24년 1,937명, '25년 3,057명으로 '26년은 '25년 동기간 대비 약 2.65배 수준임¹⁾
- '26년 7월에만 2,792명이 신고되어 1월~7월 누적신고의 약 34%를 차지했으며, 하루 평균 약 90명이 신고한 수준임. 7월 말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중부 보헤미아(1,153명), 남모라비아(1,052명)으로 확인됨²⁾³⁾



※ 각 연도 1~7월(동일기간) 누적 신고 건수 비교

※ 2026년 자료는 2026.8.1. 기준 잠정자료

자료: Czec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SZÚ), Cases of selected infectious diseases in the Czech Republic, January–July 2026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eriod of preceding years 2017–2025.

그림 2-1. '17년~'26년 1월~7월(동기간) 체코 라임병 신고현황¹⁾ (체코국립공중보건연구소 자료활용, '26.8.1.)

- '18년~'24년 체코 국가 감시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총 26,183명이 보고되었고,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7.0~44.5명으로 확인됨. 여성이 54%로 남성 46%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9세와 55~74세에서 높은 양봉형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입원율은 18.4%, 조사기간 중 사망은 8명이었음⁴⁾

※ 다만, 체코 감시자료는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감염지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프라하 거주 환자의 32.2%는 프라하 외부(중부 보헤미아 45.4%, 남보헤미아 16.6%)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 발생률은 비소치나 지역(3,571명, 인구 10만명당 100.1명)과 남부 보헤미아 지역(3,203명, 인구 10만명당 71.1명)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임. 해당 지역은 라임병 발생 풍토지역으로 울창한 삼림, 적절한 고도, 습하고 서늘한 기후 등 진드기 생존에 유리한 생태학적 조건을 제공하며,

인기있는 휴양지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감염 위험이 높음⁴⁾

- 그러나 최근 혈청유병률 연구에서는 일부 모라비아 지역의 항체 양성률이 보헤미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감시자료와 다른 지역적 양상이 확인됨. 이는 혈청검사가 무증상 또는 과거 진단되지 않은 감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감시자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신고된 환자를 중심으로 집계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함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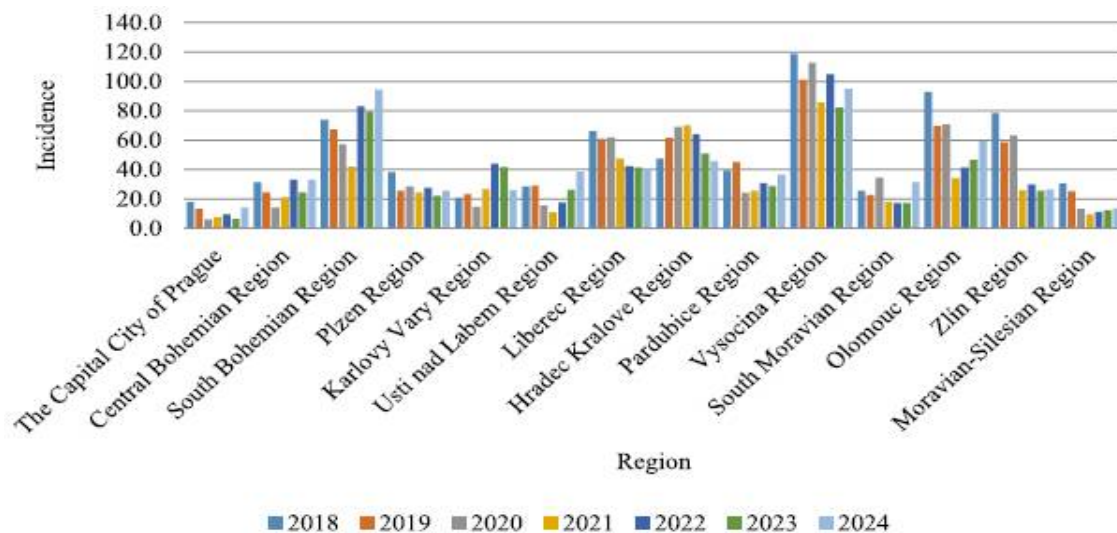


그림 2-2. '18년~'24년 체코 라임병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현황⁴⁾ (Polcarova P. et al., '26.7월.)

- 유럽 29개국의 공개된 국가 감시자료를 이용한 '15년~'23년 연구에서 라임병 사례는 연평균 약 132,000명이 보고됨⁵⁾
 - '19년~'21년에는 일시적인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21년~'23년 다시 증가함. 최신 자료가 확보된 국가의 약 70%에서 최근 2년간 발생률이 평균 36% 증가함⁵⁾
 - 유럽 인구 중 최소 약 2억 2,300만 명(약 30%)이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10만 명당 10명 이상 보고되는 고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⁵⁾
 - 단, 국가별 사례정의, 감시대상 범위(유주성 홍반, 라임신경보렐리아증 등) 및 진단 검사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간 라임병 발생률의 직접 비교는 제한이 있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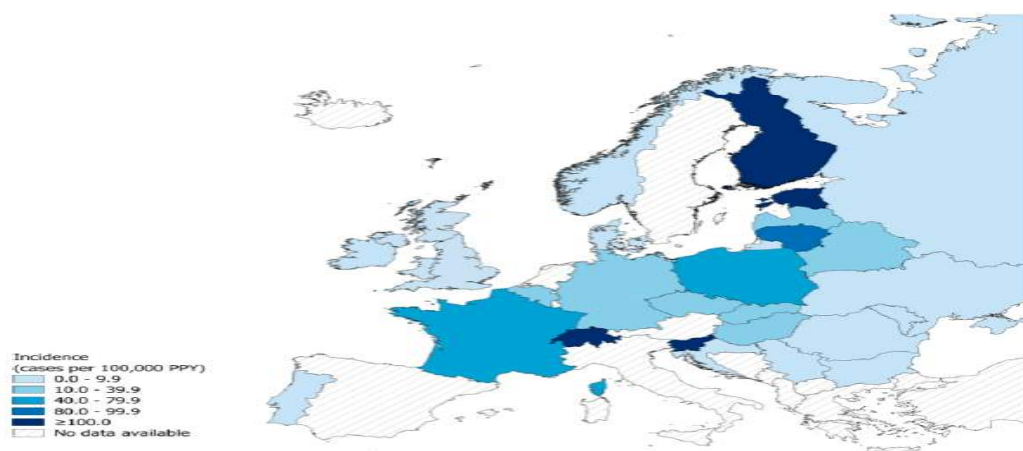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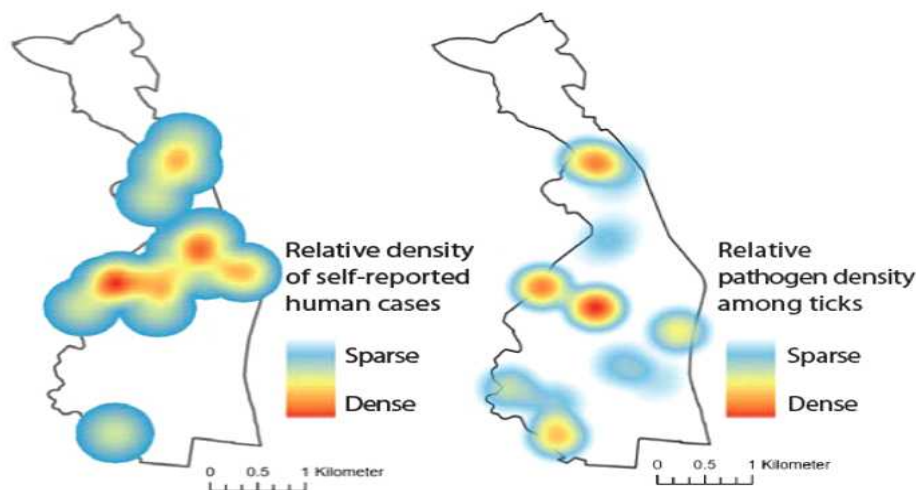


그림 2-3. 최근 3년간('21년~'23년) 유럽 내 인구 10만명당 라임병 발생 현황⁵⁾ (Davidson A. et al., '25.11월.)

- 한편, 라임병 원인균의 지리적 분포 변화와 관련하여, 美CDC는 기존 라임병 비풍토지역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빌트모어 숲에서 '24년 11월~'25년 8월 시행된 검은다리진드기 조사 결과를 발표함⁶⁾
 - 25개 주거지에서 총 373마리의 진드기가 채집되었고, 이 중 287마리(76.9%)가 검은다리진드기(*Ixodes scapularis*)였으며, 검사된 성충 48마리 중 19마리(39.6%), 약충 7마리 중 3마리(42.9%)에서 *Borrelia burgdorferi sensu stricto*가 검출됨⁶⁾
 - 또한 보렐리아 미야모토이(*B. miyamotoi*)와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포필룸(*Anaplasma phagocytophilum*)도 검출됨. 이는 검은다리진드기(*I. scapularis*)의 서식 범위가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조사 지역이 이러한 분포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 가능성을 제시함⁶⁾



* Pathogen: *Borrelia miyamotoi*, *Borrelia burgdorferi sensu stricto*, *Anaplasma phagocytophilum*

그림 2-4. '24년 11월~'25년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빌트모어 숲 진드기 매개 질병 인체 감염 사례 및 채집 진드기 내 병원체 상대 분포⁶⁾ (Sweeney S et al., '26.8.13.)

- 또한 '26년 6월 미국 주간보고서(MMWR)에 따르면, 기존에 주로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만 보고되었던 보렐리아 마요니(*B. mayonii*)가 뉴욕(허키머 카운티)에서 확인됨. '25년 7월에 확인된 환자는 여행력이 없었음에도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아나플라스마 동시감염 상태로 독시사이클린 치료 후 완치됨. 환자 자택에서 채집한 검은다리진드기에서도 보렐리아 마요니(*B. mayonii*)가 검출되어 지역 내 전파 근거로 제시됨⁷⁾

상황 평가

- 체코에서는 '25년 7월부터 일반의 및 소아과 의사가 보고한 감염병 정보가 중앙 감염병 정보시스템(ISIN)에 자동 입력되도록 감시·보고체계가 변경됨. 이에 따라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근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됨
- '15년~'23년 유럽 라임병 연구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됨을 근거로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진드기 예방 캠페인 강화, 의료진 교육 개선 등 예방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국가별 감시체계 차이로 실제 질병부담이 과소평가될 수 있어 감시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함
- 美 남부지역 검은다리진드기 확산연구(Sweeney et al.)에서는 보렐리아 미야모토이(*B. miyamotoi*),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포필룸(*A. phagocytophilum*)의 검출을 근거로 미국 남동부에서 검은다리진드기 감시와 관련 병원체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또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호복 착용, EPA 등록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진드기 확인 등 진드기 물림 예방교육을 권고함
- 국내에서는 산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남방참진드기, 사슴참진드기가 라임병 주요 매개체로 확인되었으며, 4~11월 주로 발생함. 야외활동 및 작업 시 ①적절한 복장(긴팔·긴바지 등) 착용, ②진드기 기피제 사용, ③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④야외 활동 및 작업 후에는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체코에서는 '25년 7월부터 일반의 및 소아과 의사가 보고한 감염병 정보가 중앙 감염병 정보 시스템(ISIN)에 자동 입력되도록 감시·보고체계가 변경됨. 이에 따라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근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함²⁾³⁾⁴⁾
 - 한편, 해당 자료에서는 보고체계 변경으로 이전에 포착되지 않았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실제 감염 규모가 기존 신고자료보다 컸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음. 체코 보건당국은 신고 증가를 감시체계 변경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①지구온난화에 따른 진드기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 지역의 고지대 확대, ②지역별 진드기 감염률 15~40%의 높은 수준을 함께 제시함. 또한 프라하 등 도시의 공원·숲도 진드기 서식에 유리한 기후를 형성해 도시 내 감염 위험이 상존함을 강조함. 따라서 '26년 신고 증가를 전적으로 실제 발생 증가 또는 감시체계 변경 중 하나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신고 증가와 감시체계 변화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²⁾³⁾⁴⁾
- 유럽에서의 라임병 발생연구(Davidson et al.)에서는 '15년~'23년 유럽에서 라임병의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최근 자료가 있는 다수 국가에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된 점을 근거로,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함⁵⁾
 - 이와 함께 연구는 진드기 예방 캠페인 강화, 의료진 교육 개선 및 효과적인 백신과 같은 새로운 공중보건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또한 국가별 사례정의·진단검사·감시체계 차이로 국가 간 비교가 제한되고 실제 질병부담이 과소평가될 수 있어, 발생 증가 또는 지리적 확산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자료의 지속적인 수집·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함⁵⁾
- 미국 남부지역 검은다리진드기 확산연구(Sweeney et al.)에서는 서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검은다리 진드기 내 *B. burgdorferi sensu stricto*의 높은 감염률과 보렐리아 미야모토이(*B. miyamotoi*),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포룸(*A. phagocytophilum*)의 검출을 근거로,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의 관련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의료진의 임상적 주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⁶⁾

- 연구는 관련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 경보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국 남동부 전반에서 검은다리진드기 감시와 관련 병원체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또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호복 착용, EPA 등록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진드기 확인 등 진드기 물림 예방교육을 권고함⁶⁾
- 국내에서는 산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남방참진드기, 사슴참진드기 등 Ixodes속 4종이 라임병 매개 가능종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연중 발생 가능하나 4~11월 주로 발생함⁸⁾.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①적절한 복장(긴팔·긴바지 등) 착용, ②진드기 기피제 사용, ③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④야외 활동 및 작업 후에는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함⁹⁾

※ (발생현황, '26.8.19.기준) ('22년) 22명 → ('23년) 46명 → ('24년) 34명 → ('25년) 41명 → ('26년) 19명

질병개요	라임병	〈Lyme Disease〉 ⁸⁾
정의	· 보렐리아속균(<i>Borrelia burgdorferi</i> , <i>B. afzelii</i> , <i>B. garinii</i> 등) 감염에 의한 질환, 제3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 <i>Borrelia burgdorferi</i> - 3개 유전형: <i>Borrelia burgdorferi sensu stricto</i> , <i>Borrelia afzelii</i> , <i>Borrelia garinii</i>	
매개체	· 참진드기(<i>Ixodes</i> 속)	
감염 경로	·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됨 - 국내 주요 매개체: 산림참진드기(<i>Ixodes persulcatus</i>), 일본참진드기(<i>I. nipponensis</i>), 남방참진드기(<i>I. granulatus</i>), 사슴참진드기(<i>I. ovatus</i>)	
잠복기	· 3~30일	
주요 증상	· 주로 유주성 홍반(erythema migrans)이 대부분(70~80%) 환자에게 관찰됨 -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부위는 호전되고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과녁 모양의 홍반 - 5cm 이상 크기, 한 개 이상이 생길 수 있음 · 임상경과 1) 초기 국소성 감염 - 진드기에 물린 1~3주 후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유주성 홍반 발생 -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등 전신증상 발생 2) 초기 파종성 감염 - 노출 후 3~10주가 지나면,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일부에서 신경학적 증상(뇌수막염, 뇌신경염 등), 심혈관계 증상, 이차성 유주성 홍반 발생 * 원발성 유주성 홍반에 비해 크기가 작은 여러 개 홍반들이 얼굴, 손, 발 등 다양한 부위에 발생 3) 만성 감염 - 수주~수년 후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약 60%에서 주로 무릎 부위에 만성 관절염 발생	
치명률	· 0.1% 미만(국내는 2015년에 1명 사망, 해외유입에 의한 사망)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피부생검조직)에서 보렐리아균 분리 동정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간접면역형광항체법(또는 ELISA)과 웨스턴블롯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치료	· 독시사이클린, 아목시실린, 세프트록심, 아지스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치료	
예방	· 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사용가능한 백신 없음	

1) Výskyt vybraných hlášených infekcí v České republice, leden – červenec 2026 porovnání se stejným měsícem v letech 2017–2025 (počet případů) Cases of selected infectious diseases in the Czech Republic, January – July 2026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eriod of preceding years 2017–2025 (number of cases) (체코국립공공중보건연구소, '26.8.1.)

2) 언론보도 | Czechia Sees Lyme Disease Surge With 90 New Cases a Day 체코에서 라임병 환자가 하루 90명씩 급증 (prague morning, '26.8.10.)

3) 언론보도 | 체코에서 진드기 매개 보렐리아증 환자가 하루 최대 90명 발생하며 기록적인 증가세 (AroundPRAGUE, '26.8.8.)

4) Polcarova P et al., Known and unexpected determinants of Lyme disease incidence: Insights from the Czech Republic (2018–2024) (Ticks Tick Borne Dis. 2026. 7월)

5) Davidson A et al. Lyme Borreliosis Incidence Across Europe, 2015–2023: A Surveillance–Based Review and Analysis (Vector Borne Zoonotic Dis, '25.11월)

6) Sweeney S et al., Southward Expansion of *Ixodes scapularis* (Blacklegged) Tick Pathogens – Western North Carolina, November 2024–August 2025 (MMWR, '26.8.13.)

7) Nafiz TN et al., Notes from the Field: *Borrelia mayonii* Lyme Disease – New York, 2025 (MMWR, '26.6.4.)

8) 2026년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 3월)

9) 보도자료 | 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 전국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청, '26.4.13.)

3. 공수병, 미국 & 캐나다 Rabies in the USA and Canada

발생 상황

美CDC는 '26년 31주까지 공수병(인체감염) 환자는 없다고 보고하였고, 캐나다 정부도 '24년 이후 공수병 환자 발생을 보고하지 않음. 다만,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버, 박쥐, 너구리 등 야생동물 중심으로 광견병(동물감염)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사람과 직접 접촉 또는 잠재적 노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

- 美CDC는 '26년 31주까지 공수병(인체감염) 환자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25년 미시간주 보고 1명, 잠정통계), 최근 비버, 박쥐 등 야생동물에서 광견병(동물감염)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사람과 직접 접촉한 사례가 보고됨⁽¹⁾
 - *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건의 동물 광견병이 보고되며, 90% 이상이 박쥐, 너구리, 스컹크, 여우 등 야생동물에서 확인됨⁽²⁾
- 8월 13일 미국 메릴랜드 주 세네카 크릭 주립공원에서 카누를 타고 있던 10세 여아가 비버에게 물려*, 지난 7월 26일 커닝햄 폭포 주립공원 내 헌팅 크릭 호수에서 수영 중인 13세 청소년과 8월 5일 같은 공원에서 낚시 중인 19세 남성이 비버에게 공격당한 이후 세 번째로 공격당한 사건이라고 발표함. 지난 두 개의 사건은 각각 비버를 포획하여 안락사하였고, 검사 결과 광견병 양성으로 확인하였으며, 당국은 공원 간 거리와 비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할 때 세네카 크릭 주립공원의 사건이 앞선 두 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며, 프레드릭·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당국도 광견병 유행 징후는 없다고 밝힘⁽³⁾
 - * 해당 비버는 현장에서 도주하여 광견병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함⁽³⁾
- 7월 4일 미국 뉴욕 주 레이크 조지 내 터틀 아일랜드 인근 수역(호수)에서 비버가 2명을 무는 사건이 있었고, 7월 9일 동일 지역에서 한 마리의 비버 사체*가 발견되어 검사한 결과 광견병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⁴⁾. 또한, 7월 21일 뉴욕 주 오스위고 카운티 내 멕시코 타운에서 박쥐 1마리가 광견병으로 확인되어 총 7건의 광견병**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함⁽⁵⁾
 - * 해당 비버가 7월 4일 공격한 비버와 동일한 개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함⁽⁴⁾
 - ** '26년 오스위고 카운티 내 너구리 3건, 박쥐 3건, 여우 1건 발생, 7월 21일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에 노출된 2명은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함⁽⁵⁾
- 8월 9일 미국 워싱턴 주 올림픽 국립공원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한 여성에게 날아들어 머리카락에 일시적으로 걸리는 등 직접 접촉하였다고 발표함⁽⁶⁾. 또한, '26년(8월 5일 기준) 워싱턴 주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이 총 6건 발생하였다고 발표함⁽⁷⁾
- 7월 미국 오하이오 주 레이크 카운티 내 페인즈빌에 위치한 주택 내부에서 발견된 박쥐가 광견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⁸⁾. 또한, 쿠야호가 카운티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5마리로, 평년보다 5배 이상 많다고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함⁽⁹⁾
 - * 이번 사건은 '22년 이후 레이크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박쥐에서 광견병이 확인된 것라고 설명함⁽⁸⁾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26년 1월부터 7월까지 동물 검체 1,789건 중 200건에서 광견병이 확인되었고, 동물별로는 너구리 122건(61.0%), 박쥐 67건(33.5%)이 전체 양성 사례 중 94.5%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퀘벡 주 133건(66.5%), 온타리오 주 36건(18.0%), 새스캐처완 주 9건(4.5%) 순으로 많다고 발표함⁽¹⁰⁾
 - '26년 7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트리니티 베이 지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 한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퀘벡 주는 '26년 1월부터 8월 3일까지 너구리 광견병 확진 사례가 149건, 박쥐 7건으로 '25년 연간

너구리 93건과 박쥐 6건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발표함¹¹⁾¹²⁾. 또한, 7월 23일 길고양이 한 마리에서 너구리 광견병이 처음 확인되었다고 발표함¹³⁾

* '04년 카트라이트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해당 주(洲) 전체에서 두 번째로 확인된 사례¹¹⁾

상황 평가

-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동물 광견병이 진단되고, 숙주 전환(Host-shift)·지리적 분포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너구리 광견병이 미국 국경으로부터 재유입되어 퀘벡 주를 중심으로 확산 중
 - 국내에서는 '05년 이후 공수병(인체감염) 발생이 없고, '14년 이후 광견병(동물감염) 발생 보고는 없음. 다만, 북한과 인접한 휴전선 인근 지역의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의심되고, 매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美CDC는 미국 내 공수병 백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망 사례는 거의 없지만, 매년 수천 마리의 동물이 광견병으로 진단되고, 새로운 동물에서 광견병의 전파, 지리적 분포의 변화 및 사람과 직접 노출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함¹⁴⁾
 - 미국은 매년 약 4,000건의 동물 광견병이 발생하고, 그 중에 90% 이상이 박쥐, 너구리, 스컹크, 여우 등의 야생동물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함²⁾. 따라서,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역청(APHIS)는 너구리 광견병이 미국 중부 내륙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미국 동부 일부 지역에 경구용 광견병 백신(ORV)을 배포한다고 발표함¹⁵⁾
 - 메릴랜드 당국 관계자는 비버가 광견병의 주요 숙주로 알려진 동물이 아니므로 이번에 발견된 감염된 비버는 이전에 너구리와 같은 다른 주요 야생동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¹⁶⁾. 또한, 뉴욕 주 환경보호국도 회수된 감염 비버가 터틀 아일랜드 비버 군집 내 다른 개체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야외 활동 중 비버(사체 포함)와의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에게 접근하거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함⁴⁾
 - 미국 농무부는 미국에서 확인된 다양한 박쥐를 포함하여 모든 야생동물 광견병 중에서 너구리 광견병의 가족·반려동물 및 야생동물로의 전파(Spillover)가 가장 많고, 노출 후 치료가 필요한 인체 노출 사례가 가장 많아 너구리 광견병이 미국 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¹⁷⁾. 또한, 오하이오 주 관계자는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사람의 생활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⁹⁾
 - 퀘벡 주정부는 '22년 미국 버몬트 주에서 확인된 너구리 광견병이 '23년부터 캐나다와 미국 국경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25년 퀘벡 주에 두 건의 유행을 형성시켰고, '26년 봄철에 너구리 광견병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체수거·신고기반 감시, 백신접종, 너구리·스컹크·여우 이동 및 이주 금지, 224개 지자체 집중감시구역 운영, 국경 양측 공동대응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¹⁸⁾
 - 퀘벡 주 농업·수산·식품부는 너구리 광견병에 감염된 길고양이 사례를 통해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간 전파가 실재하는 위험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너구리 광견병의 확산을 막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함¹³⁾
 - 국내에서는 '05년 이후 공수병(인체감염) 발생이 없고, '14년 이후 광견병(동물감염) 발생 보고는 없음¹⁹⁾. 다만, 북한과 인접한 휴전선 인근 지역의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의심되고, WHO는 매년 150개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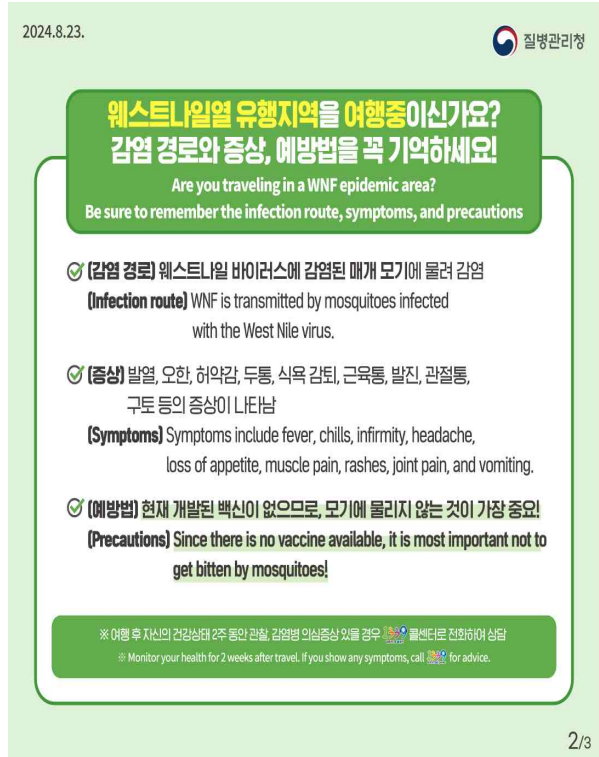
국가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위험국가 여행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²⁰⁾

- 1) Rabies, Human (Week 31) Weekly cases* of notifiable diseases, United States, U.S. Territories, and Non-U.S. Residents week ending August 8, 2026 (CDC Stacks, '26.8.8.)
- 2) Rabie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ng Public Health (CDC, '25.9.30.)
- 3) 언론보도 | 3rd beaver attack in Maryland prompts closures at Seneca Creek State Park (FOX 5 DC, '26.8.12.)
- 4) 보도참고자료 | DEC Updates Swimming Advisory at Turtle Island, Lake George (NEW YORK STATE, '26.7.11.)
- 5) 언론보도 | Oswego County Announces Positive Rabies Case in Town of Mexico (EIN PressWire, '26.7.21.)
- 6) 보도참고자료 | Bat Tests Positive for Rabies at Olympic National Park (National Park Service, '26.8.12.)
- 7) Zoonotic and Vector-Borne Disease Dashboard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26.8.20.)
- 8) 보도참고자료 | Lake County Confirms First Rabid Bat Since 2022 (Lake County General Health District, '26.7.23.)
- 9) 언론보도 | Cuyahoga County warns of increase in rabid bats (Spectrum News 1, '26.8.20.)
- 10) Rabies cases in Canada 2026 (Government of Canada, '26.8.14.)
- 11) 보도참고자료 | Public Advisory: Rabies Confirmed in Bat in Trinity Bay Area (Newfoundland Labrador Canada, '26.7.14.)
- 12) Rabies in animals (Gouvernement du Québec, '26.8.19.)
- 13) The first confirmed case of raccoon rabies in a cat and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our pets (Gouvernement du Québec, '26.8.19.)
- 14) Rabies is Still Here: Epidemiology, Outbreaks, and Costs of Prevention in the United States, (CDC Clinician Outreach and Communication Activity, '26.4.30.)
- 15) USDA Conducts 2026 Oral Rabies Vaccination Efforts Targeting Wildlife in Eastern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6.7.31.)
- 16) 언론보도 | Maryland leaders are confident, but not certain, lake is safe after rabid beaver attacks (Wtop News, '26.8.10.)
- 17) NWRC Research Areas: Rabie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6.2.23.)
- 18) Raccoon rabies surveillance and control operations (Gouvernement du Québec, '26.8.14.)
- 19) 감염병 포털,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26.8.20.)
- 20) 보도참고자료 | 세계 공수병(광견병)의 날, 해외여행 시 공수병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 '25.7.29.)
- 21) 2026년도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3.23.)

질병개요	공수병	〈Rabies〉 ²¹⁾
정의	·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의 감염에 의한 질환 · 사람의 경우 공수병, 동물의 경우 광견병으로 지칭	
병원체	·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	
병원소	· 감염원은 주로 감염된 개와 야생동물(너구리, 오소리, 원숭이, 스컹크, 여우, 박쥐 등)이며, 이들이 사람을 물러 교상 발생 시 대부분 감염 · 야생동물은 공수병 저장숙주(reservoir) 역할을 하며 사람 및 가축 감염의 일차적 병원소 · 가축·반려동물은 야생동물에게 물려 감염된 후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2차 전파의 매개자 역할	
감염 경로	· 대부분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핏줄 교상 부위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침투하여 감염 ·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집단 서식하는 동굴 내에서 연무질(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 감염된 동물의 타액 또는 조직을 다룰 때 타액이 점막(눈, 코, 입)에 묻거나 상처를 통해 전파 · 사람 간 전파는 각막, 간, 신장, 폐 이상 등을 통한 사례가 보고됨	
잠복기	· 평균 2~3개월(1주~1년까지 다양함) · 물린 곳이 중추신경과 가까울수록 잠복기는 더 짧음	
주요 증상/임상 경과	· 발병초기(전구기) : 2~10일 정도 지속,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등의 비특이적 증상을 보임 · 발병후기(급성 신경질환, 혼수, 사망기) : 불면증, 불안, 혼돈, 부분적인 마비, 환청, 흥분, 타액, 땀, 눈물 등 과다분비, 연하곤란, 물을 두려워하고, 수일(평균 7~10일) 이내에 사망 · 합병증 : 부적절항이노호르몬증후군(SIADH), 요붕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부정맥, 위장관 출혈, 장 마비, 혈소판 감소 등	
진단	· 검체(타액)에서 Lyssavirus rabies 분리 · 검체(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혈청,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타액, 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료	· 상처 세척,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노출정도에 따라 조치	
환자관리	·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환자 상처 및 분비물 등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 - 헌혈 금지 기준 : ① 예방 목적의 공수병 백신 접종 후 24시간 이내 헌혈 금지 ② 동물에게 물린 후 공수병 백신 접종 후 1년간 헌혈 금지 ③ 치료 종료 후 1개월간 헌혈 금지 · 접촉자 관리 :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접촉 주의	
예방	· 노출 전 예방조치 : 공수병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수의사, 야생동물 관리자, 실험실 근무자 등)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접종 시행 · 접종방법 및 부위 : 공수병 백신 0.5ml를 총 2회(0일, 7일),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웨스트나일열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 가능

모기는 밤에만? 낮에도 위험한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법 카드뉴스

2026.8.20. 질병관리청

**출발 전 건강정보 확인은
여행의 시작!**

‘모기 매개 감염병’
미리 알고, 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시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

1/6

2026.8.20. 질병관리청

모기 매개 감염병

	숲모기	· 열기열 · 치쿤구니아열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황열
	집모기	· 웨스트나일열
	얼룩날개모기	· 말라리아

치쿤구니아열이란?

- ▶ 숲모기에 물려 감염
- ▶ 고열과 함께 극심한 관절통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
- ▶ 사망률은 낮은 편이나, 고령자·신생아 등 고위험군에서는 사망 사례도 보고됨
- ▶ 회복 후에도 관절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후유증 발생 가능

2/6

2026.8.20. 질병관리청

어떤 곳을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하나요?

모기 매개 감염병 위험 지역 (특히 해발 2,000미터 이하)

▶ 모기 매개 감염병: 열대·아열대 모든 지역 (특히 해발 2,000미터 이하)

▶ 치쿤구니아열

2026년 현재 유행 중

남미: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남아시아: 파키스탄

최근 수년간 국내 여행객 감염 국가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3/6

2026.8.20. 질병관리청

안전한 여행을 위한 예방법

✈ 여행 전

정보와 물품 준비

- ▶ 방문국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 ▶ 모기 기피제, 밝은 색 긴 옷 등 준비

※ 치쿤구니아열 백신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 여행 중

모기 물림 예방 수칙

- ▶ 밝은 색 긴 소매·긴 바지 착용, 낮 시간대에도 기피제 사용
- ▶ 기피제는 노출 피부뿐 아니라 옷·신발 상단·양말에도 사용
- ▶ 숙소는 모기장·방충망 확인, 고인 물 주변 피하기

4/6

2026.8.20. 질병관리청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봐야 해요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관절통
(관기 힘들 정도, 손목·발목·무릎 등)



근육통, 두통



피부 발진



극심한 피로감



결막염
(눈 충혈)

귀국 후 2주 이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5/6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 가능

2026.8.20. 질병관리청

**건강하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다양한 질병 관련 정보 알아보기

질병관리청 아프지맵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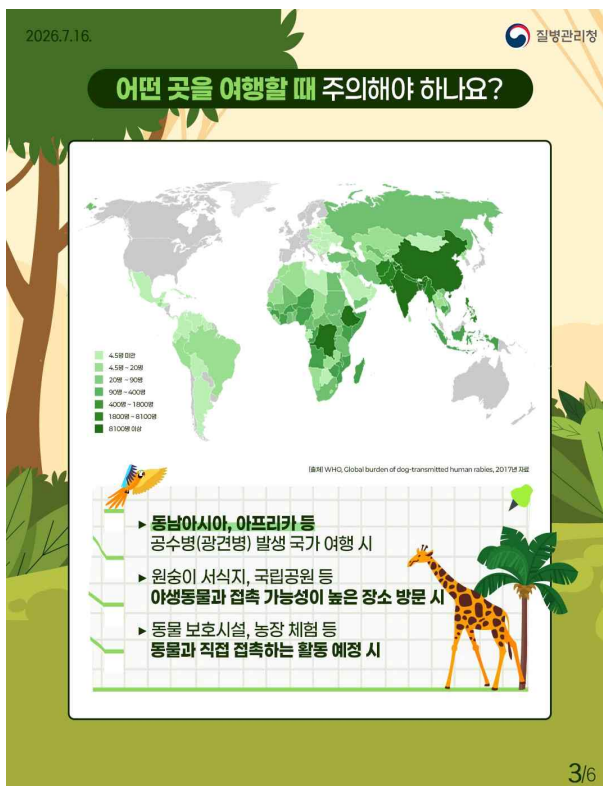


여행과 관련된 건강 상담

여행의학 클리닉 활용법

6/6

여행 중 마주친 원숭이나 길고양이 조심! 동물물림 사고 예방법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홍보자료> [카드뉴스](#)에서 확인 가능